

마다가스카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4

마다가스카르

(Democratic Republic of Madagascar)

I. 일반개황

면적	592천 km ²	G D P	96.5억 달러(2008년)
인구	20.2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478 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riary(AR)
대외정책	친서방 자유주의	환율(달러당)	1,708.4(2008년)

-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한반도의 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20.2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인 안타나나리보(1.7백만명), 해상 물류의 거점인 토아마시나(21만명), 남부 내륙의 경제 중심지인 피아나란트소아(17만명) 등의 주요 도시를 보유하고 있음.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수출가공지역(EPZ)을 중심으로 섬유가공 등의 제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유전탐사가 시작되고 니켈, 크롬, 티타늄, 등의 광물자원 개발이 추진되면서 향후 천연자원이 마다가스카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5.3	4.6	4.9	6.2	7.0
재정수지/GDP	-4.9	-4.7	-4.4	-4.7	-4.5
소비자물가상승률	13.8	18.5	10.8	10.3	9.2

자료: IMF, EIU

□ 2004년 이후 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

- 2004-07년 마다가스카르 경제는 농업 및 섬유산업의 호조, 관광산업의 건실한 성장, 석유 및 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 증가와 고급(high-end) 시장을 겨냥한 관광산업의 호조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7.0%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지속되는 농업 부문의 호조세와 광산업의 성장(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산업이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각각 4.2%, 6.2%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취약한 조세징수 기반과 부실한 재정관리, 수출가공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혜택에 따른 세입 부족 등으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평균 4.6%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2009-10년에도 세계 경기침체의 악화,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 등으로 동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각각 5.6%, 5.5%로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개선 추세

- 2004-05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수도, 전기 요금 등 공공서비스의 요금 인상, 자국 통화(Ariary)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 등으로 평균 1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동국 경제에 커다란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2007년 9.6%, 2008년 7.1% 등 한 자릿수 이내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중앙은행 총재를 새로이 임명하고 유동성 관리 등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음. 그 결과, 2006-08년 소비자물가는 평균 10%로 다소 개선된 바 있음.
- 2009-10년에도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동국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6.6%, 6.0%로 회복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외부충격에 취약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마다가스카르는 2007년 기준, 농업이 총 GDP의 27%를 차지하는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주요 농산물은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바닐라, 커피, 정향나무, 목화 등이며, 참새우(Prawn) 및 참치 조업을 중심으로한 수산업도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쌀 생산의 경우 부족한 관개시설 및 낙후된 농법으로 인해 생산량이 저조하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상품 작물인 바닐라와 커피 등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강도가 연간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 시세에도 민감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도로, 항만, 전력 부문의 인프라 미비로 말미암아 농·수산 제품의 운송 및 보관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취약한 경제 인프라

- 경제 인프라 또한 도로의 15%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철도 운행도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음. 전기도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와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제공되며 그마저 불안정한 실정임. 상하수도 시설도 미흡하여 마다가스카르 인구의 45%만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고 있음. 이와 같이 동국의 열악한 인프라는 광물자원 개발, 관광산업, 제조업 및 고부가 가치 농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를 중심으로 도로신설 및 개보수, 교량 신설 등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개발 투자가 한창임.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마다가스카르 국영전력공사(Jirama)의 민영화가 IMF 및 World Bank의 협조 하에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어, 향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

- 마다가스카르는 최근 확인된 석유를 비롯하여 니켈, 크롬, 보크사이트,

석탄 및 보석류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자원개발의 경쟁이 치열한 여타 아프리카 지역에 밀려 소외되었던 동남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동 아프리카해 심해유전, 내륙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등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중 마다가스카르는 탄자니아와 더불어 자원 투자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타오라 그나로 티탄 개발, 크라오마 광업공사의 보크사이트 채굴 재개를 들 수 있으며, 석유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서남해를 위주로 광구를 나누어 외국 메이저 석유업체가 석유 시추작업을 진행 중임.
- 한편, 도로, 전력, 항만 등의 산업인프라 미비로 인해 본격적인 자원 개발과 이를 상업화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관광산업

-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광활하게 펼쳐진 열대 해안, 지리적 독립성으로 인해 발달한 특이 생물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호텔 등의 기본 관광 인프라 미비로 인해 관광산업이 모리셔스, 세이셸과 같은 인근 도서국에 버금가는 성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2003년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편을 확충하고 철도, 도로 등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해왔음. 최근에는 2012년까지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항 신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경쟁력 있는 수출가공지역

- 저렴한 임금과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마다가스카르 수출가공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특히, 다자간섬유협상(Multi Fiber Agreement: MFA)의 폐지로 유럽지역의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쿼터가 없어지고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0.6%의 임금 인상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국의 섬유가공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미국의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및 EU와의 경제협력계약(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한 데 이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공산품에 대한 서방선진국의 무관세 수입 정책이 시행·유지되고 있어 향후 동지역의 수출신장이 기대되고 있음.

□ 수산업 성장 가속

- 5,800Km의 해안선을 지닌 마다가스카르는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수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현재 유럽지역의 고급식재료에 대한 꾸준한 수요증가로 인해 참새우(Prawn), 참치 조업이 활발하여 주요 수출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양식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정책성과]

□ 2002년 정치위기 극복 이후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

- 마다가스카르는 2002년 정치위기를 극복한 이래 일자리 창출, 경제 인프라 구축, 보건 및 의료 개혁, 민간경제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강력한 경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음.

- IMF 및 World Bank의 자문을 받아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빈곤 해소, 자유 시장경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민영화 추진 등을 통해 양호한 경제성장, 물가 안정세, FDI 확대 등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MAP(Madagascar Action Plan 2007-2012)의 야심찬 추진

- 라바로마나나 전 대통령은 2002년 취임 이후 경제개발 프로그램인 MAP를 수립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대규모 원조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2006년 재선 성공의 기반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음.
- MAP는 2012년까지 민간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0%로 끌어올리고, 1인당 GDP를 476 달러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절대 빈곤층 비율을 현 85%에서 50% 수준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MAP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목표들로만 채워져 있어, EU 및 서방 원조국들은 그동안 추가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왔음.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MAP의 정책계획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제시하는지 여부가 동국의 원조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541	-626	-531	-811	-1,137
경 상 수 지 / GDP	-12.4	-12.4	-9.6	-11.0	-11.8
상 품 수 지	-437	-593	-551	-853	-1,272
수 출	990	834	964	1,095	1,164
수 입	1,427	1,427	1,515	1,948	2,437
외 환 보 유 액	503	481	583	847	982
총 외 채 잔 액	3,483	3,517	1,395	1,639	1,926
총 외 채 잔 액 / GDP	79.8	69.8	25.3	22.2	21.8
D . S . R .	5.8	5.7	4.1	4.6	3.3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만성적 적자기조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바닐라, 아라비카 커피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약세,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높은 수입 의존도(석유, 쌀, 공산품 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자본재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일조하기도 하였음. 2008년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2% 수준인 11억 달러를 기록함.
- 2009년에는 다자간 섬유협상(Multi Fiber Agreement: MFA)의 폐지에 따른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으로 섬유가공업의 수출이 둔화되고,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또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탐사작업이 진행 중인 해양 유전의 원유생산이 개시되고 광물자원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2010년부터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기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점진적 외채구조 개선

- 외환보유액은 최근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을 향한 해외투자자본의 유입 확대에 힘입어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함.
- 총 외채규모는 2004년까지만 해도 GDP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외채부담이 심각하였으나, 2001년 시작된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2005년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1억 8천만 달러의 대규모 채무를 전액 탕감 받아 GDP 대비 외채비중이 2008년에는 21.8%까지 개선되었음.
- D.S.R.도 외채탕감 및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어 5%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GDP: 55억 달러('06) → 74억 달러('07) → 96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25.3%('06) → 22.2%('07) → 21.8%('08)
 - 외채상환비율(D.S.R.): 4.1%('06) → 4.6%('07) → 3.3%('08)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대규모 반정부 폭력사태 발생에 따른 정치혼란 지속

- 2009년 1월, 안드리 라조에리나(Andry Rajoelina) 전 안타나나리보 시장은 정부가(라트시라카(Ratsiraka)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자신 소유의 TV 방송국을 폐쇄한 데에 반발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동국의 유혈사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음. 이 결과, 약 125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한편, 2월 21일에는 라조에리나가 폭력시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UN 특사 및 종교 지도자의 중재 아래 마크 라발로마나나(Marc Ravalomanana)와의 평화협상을 진행하면서 반정부 폭력사태가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3월초, 라발로마나나가 정국 안정을 위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할 것을 재천명한 이래 보안군이 라조에리나의 거처를 습격하면서 군부의 개입으로 동 사태가 본격적인 쿠데타로 비화되면서 라발로마나나의 축출로 이어짐.
- 지난 5월에는 UN의 중재 하에 라조에리나 과도정부와 임시의회를 구성하고 국가화해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 과도 정부 출범 후 14개월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라조에리나와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6월 3일, 마다가스카르 법원이 라발로마나나에 대한 궤석재판을 통해 징역 4년과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함에 따라, UN의 중재 아래 합의한 정국위기 해소책은 사실상 파기될 것으로 해석됨.

□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고조

-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의 집권 초기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며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을 지지하던 국민들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 속에 도리어 더욱 심화된 부정부패와 빈부 격차를 목도 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음.

- 한 가지 사례로 대우 로지스틱스의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을 들 수 있음. 대우 로지스틱스는 라발로마나나 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지난해 마다가스카르에서 총 130만 ha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여 옥수수 재배 및 야자유 생산을 추진해왔음. 한편, 외신 분석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정부의 농지개발 사업 추진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음. 라조에리나 역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작지를 상실할 것이라며 본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3월, 대우와의 농지개발 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국제관계]

□ 미국 및 유럽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지속적인 국제원조 유치

- 대통령의 親서방 자유화 정책기조에 따라 과거 지배국이었던 프랑스와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여타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아가고 있음. 또한 World Bank, IMF 등의 국제기구의 요구에도 착실히 부응하며 국제원조 유치를 통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7년 12월,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EU는 마다가스카르를 대상으로 2008-2013년 동안 도로, 교량건설을 비롯한 1차 산업 인프라 개선에 8.7억 달러 규모의 원조 지원을 약속하였음. 또한, EU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인 MAP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한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며 2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 아울러, 민주화, 복지개선 등 저개발국가의 과제 추진실적에 따라 수백에서 수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MCC)로부터는 2005년 첫 번째 수혜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이래 1.1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받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사회 안정

□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

-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는 동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라발로마나나 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은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와 수출가공지역에 집중되어,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는 악화되기만 하였음.
- 이 같은 빈곤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정부는 절대 빈곤층의 비율을 현 85%에서 2012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 다양한 종족으로 형성된 강한 국가 정체성

-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는 말레이·인도네시아계의 20여개 종족,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아프리카 및 이슬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메리나, 베츠미사라카, 베칠레오 3개 종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수도인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거주중인 메리나족은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의 출신 계통으로, 최근 대부분의 경제발전 혜택이 이 종족에 집중되고 있어 사회적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또한 지난 2007년 4월 통과된 헌법개정안에 따라 순수 마다

가스카르 출신의 혈통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이민자 및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그러나 다양한 종족 구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과 격리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낸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여타 어느 국가 대비 강한 국가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종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7등급 (2007. 3) → 6등급 (2008. 10)
- o ICRG : 118/140 (2007. 12) → 116/140 (2008. 11)
- o I.I : 136/174 (2008. 9) → 138/177 (2009. 3)
- o Euromoney : 123/186 (2008. 9) → 161/186 (2009. 3)

2. 외채상환태도

□ 2005년 HIPC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 재조정

- 2001년 HIPC Initiative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시한 이래 2003년 1억 9천만 달러, 2004년 1억 7천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는 등 외채부담의 상당 부분을 해소함. 이후 IMF, World Bank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하여 2005년 HIPC Completion Point에 도달, 2005년 12월 IMF는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마다가스카르 앞으로 지원된 원조자금 전액(1억 8천만 달러)을 탕감하였음.

그리고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원조에 힘입어 적자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2009년 1월 라조에리나(Rajoelina)의 주도로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폭력사태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대외개방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도시-농촌지역 간 빈부격차는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국의 국별신용등급을 D2 등급으로 평가코자 함.